
IT 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 !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2011. 7. 20.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 례

I. 주요 추진성과	1
II. 방송통신 환경 변화	3
III. 비전 및 정책목표	5
IV. 4대 핵심과제	6
①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6
②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12
③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18
④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24
V. 기대 효과	30
VI. 추진 체계	32

I 주요 추진성과

□ 방송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 방송사업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진입규제 완화
 - 대기업 기준이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08)
 - 신문·대기업의 지상파(10%) 및 종편·보도(30%) 진입 허용('09)
- 가상·간접광고가 도입되어 방송시장의 활력 제고
 - 가상·간접광고 개념 규정('09), 허용범위·시간 등 세부기준 마련('10)
- 수도권('08)·부산권('09)·광주권('09)에 영어FM 방송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 새로운 종편·보도채널과 홈쇼핑채널 사업자 선정
- 울진·강진·단양('10)과 제주('11.6)에서 디지털 전환 시범 추진

□ 통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 전국적인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 1,300만 가구 50M급 초고속인터넷, 3천만명 1~2M급 무선인터넷 이용('10)
 - OECD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조사에서 세계 1위 기록('10)

-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파수 회수·재배치 추진
 - KT(900MHz대역), LG U+(800MHz대역), SKT(2.1GHz대역)에 각 20MHz폭 할당('10)
 - 800MHz(10MHz폭), 1.8GHz(20MHz폭), 2.1GHz(20MHz폭) 등 3개 대역 총 50MHz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 마련('11.6)
- 통신3사 M&A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마련
 -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08), KT·KTF 합병('09), LG 3사 합병('09) 승인
- 통신요금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 경감
 -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08), 가입비 인하('09), 초단위 과금제 시행('10), 발신자 번호표시 전면 무료화('10), 기본료 인하방안 마련('11.6) 등

□ 방송통신융합을 본격 추진

- IPTV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에 안착
 - IPTV 서비스 개시 2년만인 '10.12월 가입자 300만 명 돌파
 - 양방향 특성을 기반으로 학교(3만8천개 학급), 군부대(2만9천개소), 공부방(900여개) 등 공공분야에서 적극 활용
- 대표적 융합매체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11.7월 1,500만 명을 돌파
- 방송통신융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11.1)
 - 기금 신설 규정이 반영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10)

Ⅱ 방송통신 환경 변화

□ ICT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

- 세계적으로 초고속 및 모바일 인터넷이 확산되고, 글로벌 표준화가 확대됨에 따라 ICT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급변
- '08년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글로벌 기업의 주도권 경쟁이 단말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서비스 등 ICT 전 분야로 확산
-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
-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 기업, 투자가 모여 들고 첨단서비스가 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실현 필요

□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 도래

- 다양한 스마트폰,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시대 도래
- 사물까지 확장되는 네트워크, 융합·지능화되는 플랫폼, 고품질 콘텐츠가 어울려 새롭고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탄생을 촉진
- 킬러 콘텐츠나 킬러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기업 및 국가간 경쟁이 치열
- ➡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필요

□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

-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전개되면서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로 공영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대
- 신규 채널이 도입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콘텐츠가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
- 선진국들은 고품질의 디지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미국 '09.6, 일본 '11.7, 프랑스 '11.11, 영국 '12.12)
- ➔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필요

□ 방송통신이 국민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ICT가 국민생활에 내재화되고 인터넷 생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방송통신이 개인 생활 및 국가 경제에 큰 영향으로 작용
- 방송통신서비스의 일상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비스 요금의 서민가계 부담, 지역간·계층간의 정보 격차 등 문제 발생
- 특히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경우 방송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이 곤란
- ➔ 소외 받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 복지 강화 필요

◇ 방송통신은 他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등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요소

◇ 스마트 시대 도래와 함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추진할 필요

Ⅲ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정책 목표

- ◇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방송통신 선진국 실현
- ◇ 방송통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 과제

핵심과제 1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 ① 지금보다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 ②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 ③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 ④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강화
- ⑤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핵심과제 2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 ⑥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 ⑦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
- ⑧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 ⑨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 ⑩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핵심과제 3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⑪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 ⑫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⑬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 ⑭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 종료
- ⑮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핵심과제 4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 ⑯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 ⑰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강화
- 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 ⑲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확산
- ⑳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IV

4대 핵심과제

핵심과제 1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네트워크 구축

» 기가인터넷 서비스, IPv6 전환, LTE 투자, WiBro 활용

◇ 주파수 영토 확장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 신규 주파수 발굴, 공공 주파수 정비, TV 유희대역 활용

◇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 TEIN 협력센터 설치, 클라우드 글로벌 IT 허브化, KOREN 고도화

◇ 글로벌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화 선도, R&D 체계 개선

◇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액티브엑스 퇴출, 웹표준 확산, 위치정보 규제 개선, 망 중립성 원칙 정립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10배 빠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 (가입자망 고도화) '12년에는 현재(최대 100Mbps)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1Gbps) 서비스, '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 상용화
 -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및 2천 가구 대상 시범서비스 제공('11년), '15년까지 보급률을 20%까지 확대
- (IPv6 전환) IPv4 주소할당이 사실상 종료('11.4) 됨에 따라 인터넷 백본망('13년 100%)과 가입자망('13년 45%)의 인터넷 주소를 IPv6로 전환

□ 무선 네트워크 확대

- (LTE 투자) LTE의 전국서비스 개시를 지원하고, 기지국 증설 등 3G(2~14.4Mbps)망의 용량 확대를 위한 투자 병행
- (WiBro 활용) 3G망에 집중된 데이터 트래픽 처리를 위해 WiBro를 적극 활용하고, WiFi-펌토셀(초소형 기지국) 등으로 트래픽 분산 유도

□ 미래 네트워크 기술 개발

- (광가입자망)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광통신 기술에 기반한 2.5Gbps급 광가입자망(WDM-PON) 기술 개발('12년)
- (차세대이동통신)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이동통신(Beyond 4G) 선행 기술 및 1.5~2Gbps급 WiFi 개발('12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적극 추진하여 주파수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 발굴

- (회수·재배치) DTV 여유 대역인 700MHz 대역 등의 회수·재배치
- (국제적 논의 대응) 2.1GHz 위성대역 및 2.6GHz 대역의 인접국 간섭 조정 추진 및 ITU 표준화 논의 중인 3.5GHz 대역의 국내 확보 방안 마련
- (공공주파수 대역 정비) 중장기적으로 공공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추가 가용 주파수 발굴

⇒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수립('11년)



□ 비면허 주파수 확대 공급

- (TV 유휴대역 활용) TV 유휴대역을 놓어준 지역 무선랜(WiFi)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추진
 - 방송서비스 보호 검증 등을 위한 실험서비스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11년), 기술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12년) 및 시범·상용서비스 개시('13년~)
- (고속 근거리 통신) 초광대역(UWB) 등 근거리에서 기가급 전송이 가능한 비면허 주파수 공급('11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 국제 연구망(TEIN) 협력 선도

- (TEIN 협력센터) TEIN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립('11년)하여 유라시아 국제연구의 교두보 확보 및 2015년까지 TEIN 프로젝트 총괄 관리
 - ※ TEIN(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 아시아 및 유럽 53개국 간 국제연구망으로, 인터넷·응용서비스·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01년 개통)
- (국제 공동연구) TEIN을 중심으로 美(GENI), 유럽(FP 7), 日(AKARI) 등 선진국과 미래 인터넷 분야 공동연구 추진

□ 클라우드 글로벌 IT 허브화

- (글로벌 진출 지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해외기업 (예. 日 소프트뱅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축 솔루션 수출 활성화를 추진
- (테스트베드 제공) 보다 많은 국내외 기업이 서비스 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대전 KISTI) 확충('11년 서버 300대) 및 TEIN과 연계

□ 국내 연구망(KOREN) 고도화

- (연구인프라 확대) 대용량 트래픽 처리기술 연구, 초광대역 네트워크 장비 시험 등 글로벌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KOREN 용량 확대

'10년	'11년~'12년	'13년~'15년	'16년~'20년
10~20Gbps	서울-대전 100Gbps	전국 100Gbps	전국 수백Gbps~1Tb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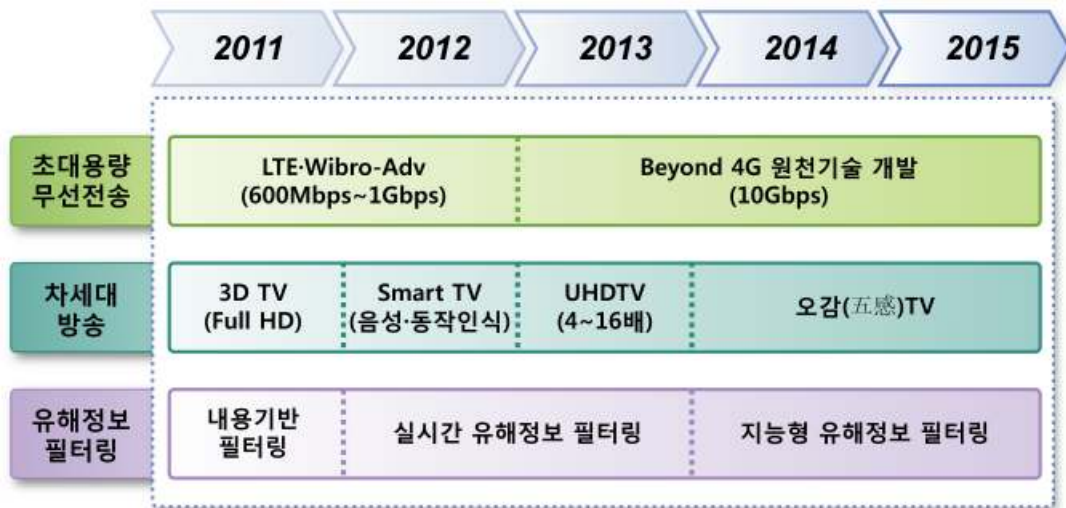
※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 초고속 네트워크를 산·학·연 등에 제공, 네트워크 기술의 시험·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R&D를 지원하는 연구시험망

- (접속 개방) 전용회선 외에 인터넷 상용망을 통해서도 KOREN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일반 기업 및 개인의 이용을 확대

첨단기술 개발과 선제적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차세대 원천기술 R&D

- (첨단기술 개발) 초대용량 무선전송 기술 등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원천기술 개발 선도(매년 약 1,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기술개발에 투자)



- (국제표준 선도) 차세대이동통신, 3D TV 등 미래 유망 기술의 표준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과 국제표준과의 연계성 강화(매년 약 200억원)

※ ITU 표준에 특허반영 확대 : ('10) 7위 → ('13) 5위권 진입

□ R&D 체계 개선

- (우선순위 조정) 빠른 기술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매년 25% 규모의 R&D과제에 대해 우선순위·연구내용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

※ 차세대이동통신 등 국가 핵심과제 중점 지원, 도전적·모험적 연구과제의 '성실실패' 용인

- (PM 주도 관리) 분야별 전문가인 PM(Project Manager) 주도로 R&D 과제별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 최종 평가에 반영

우리만의 인터넷이 아닌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인터넷 표준기술 확산

- (액티브엑스 퇴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없고 보안성도 낮은 비표준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를 주요 100대 사이트에서 퇴출(~14년)
 - 공공·금융 등 주요 100대 사이트를 선정하여 대체기술 적용 지원, 개인쇼핑몰 등 취약사이트 기술실무자 대상 교육 제공 등
- (멀티 브라우저 및 웹표준 확산) 다양한 브라우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캠페인 및 차세대 웹표준(HTML5) 전문가 육성, 가이드라인 개발

□ 인터넷 이용규제 개선

- (위치정보) 위치정보의 획득과 활용에 있어 글로벌 규제와 국내 법 제도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 (본인확인제도) 소셜댓글 서비스 등 새로운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댓글문화 제도 개선 모색

□ 인터넷 이용원칙 정립

- (망 중립성) OECD 등 국제기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터넷 산업 성장과 네트워크 투자 유인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11년)
- (mVoIP)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11년)

◇ 일하고 즐기는 방식을 혁신할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근접통신, 스마트TV, 3D 방송 등

◇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

» 창업 지원, 스타기업 육성, R&D 및 테스트베드 지원, 컨설팅 제공

◇ 방송통신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 신규방송 활성화, 유료방송 시장개선, 마케팅비 축소, MVNO 시장 안착

◇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 생태계 경쟁구도 법제화, 방송회계제도 도입, 시장조사 강화

◇ 방송통신 전략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전략국가 선정, 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 APT·ITU 등 국제협력

일하고 즐기는 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올 7대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① **(클라우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모바일, 한류콘텐츠, 미디어 등을 클라우드와 접목, 경쟁력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오피스 등을 활용하여 '15년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 추진
- ② **(사물인터넷)** M2M 단말에 적합한 초저전력 기술과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M2M 단말·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추진
 ※ 국내 M2M 시장 : '10년 2.3조원 → '14년 7.6조원(기지국서버 등 장비, 부가응용서비스 포함)
- ③ **(근접통신)** 모바일 지갑(전자결제) 시범서비스를 추진('11년)하고, '15년까지 전국 150만 개소에 결제 인프라를 구축('15년 모바일결제의 60%)
- ④ **(스마트TV)** 음성·동작으로 작동하고, 양방향 맞춤형 광고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활성화
- ⑤ **(T-커머스)** IPTV, 디지털케이블, 스마트TV 등 양방향 방송매체의 확산에 따라 텔레비전 기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성화
- ⑥ **(위치기반)**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위치정보 공동 DB 운영, 법률상담 등을 통해 LBS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 및 창업 지원
- ⑦ **(3D 방송)** 지상파 본방송 채널에서의 고화질 3D TV 시범서비스 실시('12년) 등을 통해 상용서비스 기반 마련

방송통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창의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성장 촉진

- (창업 지원)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 분야의 1인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젊은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아이디어 공모→전문가멘토링→창업자금 지원, 국내·외 투자사 연계
 - 전국 5개 지역(대학내)에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구축(‘11년)
- (글로벌 스타기업 지원) 유망기업 발굴·홍보, 창투자 투자연계 등을 통해 창의적인 중소벤처를 발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 지원

□ 벤처기업 기술력 제고

- (통신사 연계 R&D)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가 기술 수요처인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R&D자금 지원
- (테스트베드 지원) 개발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각종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 (전문컨설팅 제공)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기술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애로기술 해결 및 밀착형 기술컨설팅 지원

□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투자지원) 통신사업자가 공동 운용하는 KIF(Korea IT Fund)펀드를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등 무선 IT 분야에 중점 투자(3,700억원)
- (교육제공) 예비창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실시(SKT 연간 5천명, KT 연간 3천명 규모)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방송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기반 조성

- (신규 방송 활성화) 종편·보도·홈쇼핑PP 등 신규 방송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 지원
 - 승인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시험방송 지원 등 추진
- (유료방송 시장개선) SO-PP 간 수신료 배분 등 방송콘텐츠 제값 받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송매체 간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
- (DMB 활성화) 신규 수익모델 발굴 등 수익원 다각화, 수신환경 개선, 광고·편성규제 개선 등을 통해 DMB 활성화 지원

□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 (마케팅비 축소)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마케팅비 축소를 유도하여 절감된 재원을 R&D·투자 등으로 전환 촉진
 - ※ '11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 유·무선 각각 '11년 매출액 대비 20% 상한
- (건전한 생태계 조성) MVNO 등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지원
 - MVNO 서비스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여 서비스 기반 경쟁 활성화
 - ※ 최근 아이즈비전('11.7.1)과 KCT('11.7.5)가 MVNO 서비스를 개시
 -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통해 통신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와 엄정한 시장조사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생태계 경쟁구도 법제화

- (법체계 정립)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T)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 네트워크 부문 경쟁에 집중한 기존 정책영역을 CPNT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신유형 불공정행위 대응) 단말기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방송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 (공정한 방송시장 질서 확립)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간 불공정한 수익배분, 시청자 피해 유발행위 등 조사·개선
 - '11년에는 방송시장 점검, 금지행위 판단기준 마련 등 여건 정비
 - ※ 금지행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송법이 '11.7월 공포('12.1월 시행)
- (방송회계제도 도입) 실효성 있는 방송정책의 수립과 공정한 방송시장 정립을 위해 방송사의 회계정보를 수집·검증하는 제도 도입
 -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 회계 전문위원회 도입 추진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시장 조사) 초고속인터넷(경품),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등의 시장에서 불법·편법 마케팅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 강화
- (거래관행 개선) 이통사-CP, 지상파-외주제작사 간 공정한 콘텐츠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

10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리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유망 방송통신 신 시장 개척

- (전략품목 확대개편) 기존 방송통신 전략품목 지원체계에서 전략 서비스 중심의 산업체 동반진출 구도로 전환

※ 전략서비스 : 4G, 인터넷기반TV, 모바일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 정보보호/전파관리

- (국가별 협력시스템 구축) BRICs,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의 개척을 위해 대륙별 전략국가를 선정, 국가별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시행
 - 전략국가 중심으로 맞춤형 로드쇼 및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추진

□ 방송통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 (지원센터 구축) 해외진출 전략서비스별 전담직원과 외부전문가 Pool로 구성된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센터 구축·운영('11년)
 - 시장조사, 바이어 매칭, 제안서 작성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해외정보 제공) 방송통신 해외정보시스템(CONEX)을 통해 해외 조달 정보, 주요국의 정책 및 시장동향 등을 적기 제공

□ 국제 ICT 협력활동 주도

- (APT·ITU 영향력 확대) APT총회 및 사무총장 선거지원('11년), ITU 전권회의 개최('14년) 등을 통해 국격제고 및 인력진출 추진
- (글로벌 협력사업) 개도국 컨설팅 지원 및 정책 결정자 초청연수(연 400명), 국제개발은행과의 공동 협력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책·산업 홍보

◇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송법제 선진화, 재송신 제도개선,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체계 확립

◇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제작기반 확충, 제작인력 양성, 투자펀드 운영, 신한류 확산

◇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미디어산업 성장을 견인

» 경쟁체제 도입, 방송광고 규제 개선, 스마트광고 활성화

◇ 2012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성공적으로 완료

» 방송시설 전환, 난시청 해소, 취약계층 지원, 케이블 디지털전환

◇ KBS와 EBS를 세계적 수준의 공영방송으로 발전

» 재정기반 선진화, 공적기능 제고,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11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

- (소유·경영 규제개선) 방송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 최소화 등 추진
- (방송법제 선진화) 현 방송법을 방송에 대한 기본법 성격인 ‘통합 방송법’으로 개편
 -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IPTV법과의 통합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수평적 규제체계 추진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 (의무재송신 범위 재설정) 사업자간 분쟁 최소화 및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재송신 채널범위(현재 KBS1, EBS) 재설정 추진
- (분쟁해결 제도화) 재송신 대가 정산기준 마련, 분쟁해결 절차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 방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 실시

-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사업자간 수직결합, 사업구조 등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 규제정책 토대 마련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체계 확립) 시청자 미디어 이용행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적 조사 전담기구 설립 추진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2015년까지 세계 5위권의 방송통신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10년 방송통신콘텐츠 세계 시장규모 7,336억불, 우리나라 203억불[2.8%]로 세계 8위)

□ 제작역량 강화

- (평가제도 도입) 지상파·PP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종합 평가하고, 제작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경쟁 촉진
- (제작기반 확충) 콘텐츠 제작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작·유통 시설을 제공하고, 방송사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지원

※ 2012년까지 경기도 일산 한류월드에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송출을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추진(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등 구비)

- (제작인력 양성) PD·방송작가·방송기술인 등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모바일 앱 개발자 교육 지원

□ 시장활력 제고

- (투자펀드 운영) 모바일·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콘텐츠 투자여력 제고(KIF펀드, 방송콘텐츠펀드 등 활용)
- (동반성장 지원) SO-PP, 이통사-CP 등 기업 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지원하고, 외주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를 육성

□ 해외진출 확대

- (신한류 확산) 드라마·K팝(Pop) 등 신한류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 정부, 방송사, 유관기관 등으로 '방송채널해외진출 협의회' 운영('11년~)
- (글로벌 유통 확대) 국내 앱스토어와 세계 앱 도매장터(WAC) 간 연동,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콘텐츠 수출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 유통 지원

13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광고시장 규모를 8조원('10)에서 10조원('13) 수준으로 확대하여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 (경쟁체제 도입) 민간이 설립한 방송광고판매회사가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사업자 허가 추진

※ KOBACO는 경쟁도입에 따라 업무·조직 등을 재설계하여 정부 출자공사로 전환

- (중소방송 지원) 경쟁도입에 따라 광고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 방송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방송광고 규제 개선

- (간접광고·협찬고지 개선) 광고시장 확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제작협찬·간접광고를 상호 허용
- (광고 편성·운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편성·운영규제를 시청자 보호,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스마트광고 기반 조성

-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 생태계 조성
- (광고기술 개발·표준화) 기업-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스마트TV 광고기술 개발 및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

14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 종료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지상파방송 설비 개선

- (방송시설 전환) '12.6월까지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 완료 추진
- (난시청 해소) 노후된 공시청 설비 개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수신기기 보급 등으로 농어촌·산간오지의 난시청 해소

□ 시청자 지원 강화

- (보완계획 수립) 해외사례 및 제주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위한 시청자 지원 보완계획 수립('11년)
 -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 확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12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 사업의 조기 종료 방안을 중점 검토
- (취약계층 지원) '11.7월부터 정부지원 대상 취약계층 가구(31만)에 대해 컨버터 무상 지원 또는 DTV 구매비용 지원(10만원) 실시
 - 취약계층 지원, TV수신관련 민원해소 등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 센터'를 전국에 구축('11년 수도권 5개 등 17개, '12년까지 총 23개)

□ 케이블·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

- (디지털 케이블방송) 디지털전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상품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11년)
 - 셋톱박스 자금 지원 등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방안 검토
- (디지털 라디오방송)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디지털 라디오 방송방식 선정('12년), 시험방송 실시 후 전환계획 마련('13년)

15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재원구조 정상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을 통해 KBS · EBS를 세계적 수준의 공영방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

- (재정기반 선진화)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원 안정화 추진(수신료 인상안 국회 제출, '11.2월)
- (수신료 제도 개선) 국회의 수신료 금액 승인에 맞춰 EBS 지원금 증액, 수신료 감면대상 확대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 (KBS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확립)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강화 등 대국민 공적서비스 확대
- (EBS 중심 사교육비 경감) 초·중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 (방송언어 순화) 언어순화 캠페인 전개, 방송종사자 교육,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을 통해 건전한 방송언어 이용환경 조성
- (자율규제 강화) 방송사 자체심의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 유도, 사후심의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송통신심의위 협력) 등 추진

◇ 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

» 제4이통사 시장진입, 선불요금제 활성화, 블랙리스트 방식 도입

◇ 누구나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강화

» 편리한 UI 개발, 장애인방송 확대, 농어촌 망구축, 보편적 시청권 강화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

» 품질평가 실시, 요금정보 확대, 피해구제 개선, 전자파 안전 제고

◇ 건전하게 인터넷을 즐기는 바람직한 이용문화 확산

» 범국민 운동 전개, 인터넷 윤리 교육, 불법·유해정보 차단

◇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개인정보보호 강화, OECD 공동 협력

16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통신시장 요금경쟁 촉발

- (MVNO 활성화) MVNO의 요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량구매 할인 및 데이터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11년)
- (제4이통사 시장진입) 3강 중심의 통신시장 고착화를 방지하고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제4이통사의 시장진입 유인

□ 통신요금 부담 경감

- (선불요금제 활성화)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여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선·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 제도 도입 추진('12년)
- (통신요금 인하 유도)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동 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 (통신비 개념 재정립)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제공하는 종합문화 서비스 플랫폼 이용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개념 재정립

□ 단말 유통구조 개선

- (블랙리스트 도입) 단말기 유통경로 다양화로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
-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대리점 등 마케팅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요금제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원

17 저소득층 · 소외계층 지원 강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접근성 확대

- (편리한 UI 개발) 장애인·노약자가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로 문자, 통화 기능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UI) 기술 개발
- (장애인방송 확대) 방송사의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화하고 편성목표 설정(중양지상파 자막방송 : '13년까지 100%)
- (통신중계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통화지원을 위해 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비장애인 간 실시간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12년)

□ 지역간 · 계층간 격차 해소

- (농어촌 망구축) 지자체·통신사업자와 연계하여 50가구 이상 지역은 '13년까지, 50가구 미만 지역은 '15년까지 100Mbps급 광대역망 구축
-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미디어 교육 거점으로 활용
※ 현재 부산·광주지역에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 (보편적 시청권) 모든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강화('11년)
※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가시청가구 비율 상향 일원화(90%) 등
- (보편적 통신) 시내전화의 인터넷전화('11.6월 1,000만명 돌파) 대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추진('12년)

18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

정확한 정보제공,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이용자 알 권리 제고

- (품질평가 실시) 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등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요금정보 확대) 위약금 정보제공 등을 위해 요금고지서를 개선하고, 유무선 통합 미환급액 조회사이트 구축 및 환급 촉진방안 마련('11년)

□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피해구제 제도개선) 사업자 자율의 이용자 피해구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분쟁조정 등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 도입
- (신유형 피해 대응) 각종 결합서비스 상품, 3D TV, 스마트TV 등 신규 불만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

□ 이용자 안전 보장

- (전자파 보호)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무선기기 보급 및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11년)
 -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위한 가칭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12년)
- (3D 안전성 제고) '10.12월 국내 최초로 마련한 '3D 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 업그레이드 추진('11년)
 -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콘텐츠 유형, 3D TV 방식별로 가이드라인 세분화

19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확산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범국민 운동 전개

- (아인세 운동) 부처별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 범국민 참여형 건전한 인터넷 문화 운동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추진
 -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64개 기관), 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 네트워크(31개 기관), 청소년 건전인터넷 문화조성 국민운동본부(85개 기관)
- (홍보 강화)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캐릭터·로고 등 인터넷 윤리 브랜드를 신규로 개발하고, 극장·포털 등으로 홍보매체 다변화

□ 인터넷 이용교육 강화

- (맞춤형 교육) 건전한 인터넷 문화 시민 양성을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 및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인터넷 활용 교육 제공
- (윤리 교육)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실, 교원 온·오프라인 연수, 인터넷 드림단 운영 등 다양한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법·유해정보 차단

- (자율 규제) 음란물, 휴대전화 불법스팸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 음란물·사행성정보 등에 대한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청소년 가입자에게 일괄 제공 등
- (기술적 조치)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자동 수집·분류, 필터링 S/W 무료보급 확대 등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제고

20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 확립

- (마스터플랜 수립)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11년)
- (모바일 보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신규 단말 보급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모바일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스마트폰용 백신이용 활성화, 보안상태 자가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11년)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정책방안 수립) SNS, LBS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종합계획' 마련('11년)
- (점검 강화) 대부업체·캐피탈 등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정보 수집 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

□ 글로벌 리더십 확보

- (해외 협력강화) 'OECD 정보보호 고위급 회의' 주도 및 아태침해사고 대응협의회를 통한 공동 모의훈련 등 협력 강화
- (글로벌 서비스 대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조사·점검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협력 채널 마련

※ 국제기구, 국내기업, 글로벌 사업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포럼 개최('12년)

방송통신의 발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과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집니다 !

□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 확보

- (방송) 국민들이 즐기는 방송콘텐츠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 미디어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
- (통신) 10배 빠른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환경이 구축되고, 통신시장의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융합) 각종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업무생산성이 높아지며, 스마트 신산업 분야의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대

□ 국가 경제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

- (생산증가) 방송통신 산업 생산은 153조원('10)에서 184조원('13)으로, 수출은 402억불('10)에서 513억불('13)로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 (고용확대) 방송통신 고용은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벤처 창업 활성화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일자리 1.3만개 창출 전망
- (IT경쟁력) OECD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10년 1위), ITU의 ICT 발전지수('10년 3위) 등 IT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최고수준 유지

구분	2010년	2013년(전망)	연평균 성장
· 방송통신산업 생산	153조원	184조원	6.7%
· 방송통신산업 수출	402억불	513억불	9.2%
· 방송통신산업 고용	31.3만명	32.6만명	1.4%

방송통신을 둘러싼 주요 10대 지표 전망

1

방송통신산업 생산



2

방송통신산업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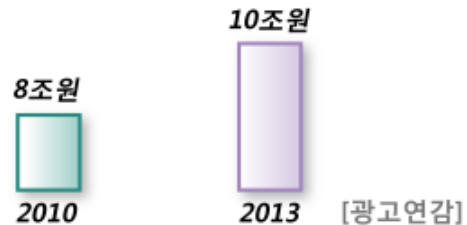
3

방송통신산업 고용



4

광고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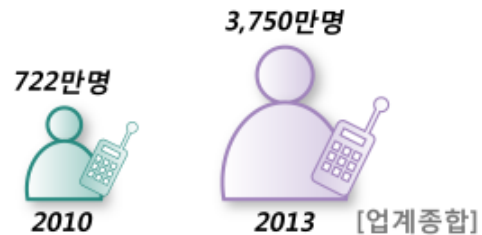
5

방송통신콘텐츠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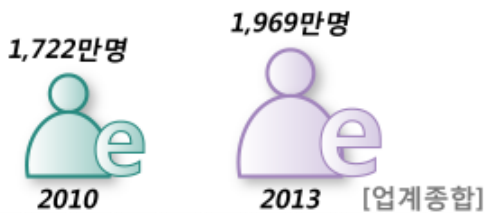
6

스마트폰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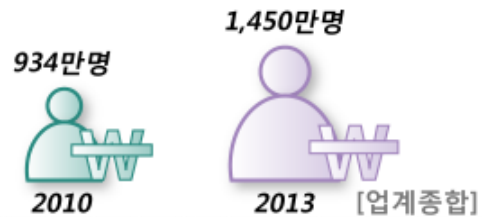
7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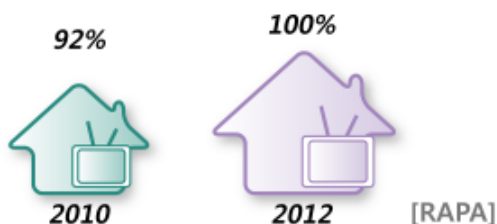
8

디지털 유료매체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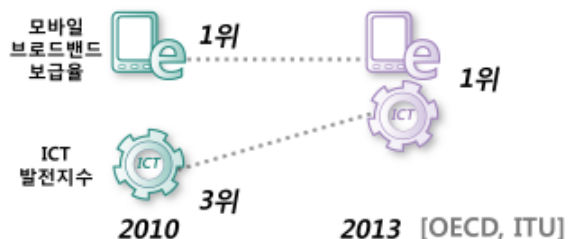
9

디지털방송 시청가능 가구비율



10

IT 경쟁력



※ 2013년 수치는 KISDI·KAIT 및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전망

VI

추진 체계

4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	주요 담당
①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① 지금보다 10배 빠른 네트워크 구축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②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전파기획관
	③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네트워크정책국
	④ 글로벌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강화	융합정책관
	⑤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②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⑥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네트워크정책국 융합정책관
	⑦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	융합정책관 네트워크정책국
	⑧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촉진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⑨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이용자보호국 통신정책국
	⑩ 방송통신 해외시장 진출 확대	국제협력관
③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⑪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기반 마련	방송정책국
	⑫ 방송통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융합정책관 방송진흥기획관
	⑬ 광고시장 확대로 미디어산업 견인	방송진흥기획관
	⑭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 종료	방송진흥기획관 전파기획관
	⑮ 고품격 청정 공영방송 구현	방송정책국 방송진흥기획관
④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⑯ 통신서비스 요금부담 완화	통신정책국
	⑰ 저소득층 · 소외계층 지원 강화	이용자보호국 통신정책국
	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	이용자보호국 전파기획관
	⑲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확산	네트워크정책국
	⑳ 사이버 세상 보안기반 강화	네트워크정책국

[붙임] 주요 용어정리

Active X

마이크로소프트社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Java) 기술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일반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 실행

FTTH (Fiber to the Home)

전화국에서 집안까지 광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고속 데이터통신, 영상전화, IPTV 등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망

HTML5 (Hyper Text Markup Language 5)

웹문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의 최신 규격으로 Active X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플래시 등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래픽 효과를 낼 수 있음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 주소체계 IPv4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주소체계로, IPv4가 32bit의 43억개(4.3×10^8) 주소 공급이 가능한 반면 IPv6는 128bit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IP 주소 할당 가능($2^{128} = 3.4 \times 10^{38}$)

LTE (Long Term Evolution)

WCDMA가 진화된 기술방식으로 패킷 데이터 전송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UWB (Ultra WideBand)

초광대역. 단거리 구간에서 저전력으로 넓은 스펙트럼 주파수를 통해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기술

WAC (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 SKT, KT, AT&T 등 세계 주요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가 참여

WDM-PON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Passive Optical Network)

파장분할 수동형 광네트워크. 현재 코어 백본에서 사용되는 파장분할 다중화 기술을 광가입자망에 적용한 것으로 가입자망의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품질과 고속화된 전송이 가능

White Space

TV 방송대역(채널 2~51: 54~698MHz) 중 방송국간 간섭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